

영광군 1년 키운 양식 참조기 대량출하

대량생산 통한 산업화 성공

단기간 고소득 품종 각광

올 어린종자 100만마리 분양

영광군이 양식 참조기를 단기간에 고소득이 가능한 품종으로 육성하는데 성공했다.

영광군은 지난 8일 영광군수협 위판장에서 1년 간 키운 양식 참조기 410상자(6만마리)를 출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하한 참조기는 영광굴비 가공업체의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위해 추진한 양식 산업화 성과물이다.

영광군은 지난해 5월1일 군비 5억원을 지원해 어린 참조기 종자를 해상가두리와 육상 수조식 양식장에 입식해 1년 만에 마리당 평균 120g이상으로 성장시켜 출하했다.

산업화에 성공한 참조기 대량생산은 영광군이 2017년부터 수정란 구입비와 어린종자 입식비 지원을 통해 처음으로 추진했다.

영광군과 위탁계약을 맺은 전남도 해양수산과 하원 영광지원은 그간 다양한 양식방법과 기술 노하우를 전수했다.

참조기 양식은 고수온과 질병에 강해 폐사 위험

이 적어 아열대 기후변화에 적합한 새로운 양식품목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또 양식업체에선 최소 6개월 단기간에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소득 품종으로 각광받고 있다.

군은 굴비 원료 확대 공급을 위해 올해도 참조기 양식에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 어린종자 100만마리를 분양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그간 추진한 참조기 양식 결과를 분석한 결과 산업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양식 참조기에 대한 유통 활성화와 안정적 판로 확대를 위해 냉동 보관료 지원과 정부 비축 수산물 선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준용 기자 jylee@kwangju.co.kr



지난 8일 영광군수협 위판장에 1년 간 키운 양식 참조기 410상자(6만마리)가 출하됐다.

<영광군 제공>

완도군, 소상공인 마케팅 홍보비 지원...100개 업체 30만원씩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포함

완도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기 불황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마케팅 홍보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마케팅 홍보비 지원은 지난해 1월1일 이전 완도군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는 소상공인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마케팅 활동 인정 범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해당된다.

온라인은 오픈마켓(옥션, G마켓, 11번가 등), 중개 플랫폼(요기요, 배달의민족 등) 수수료, 소셜 마케팅 등이며 오프라인(플래카드, 전단지, 판촉물 등) 제작비와 신문 광고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신청은 완도군청 경제교통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선착순 접수로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된다.

구비 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확인하거나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완도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주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목포해경, 농무기 연안 위험예보제 '관심' 발령

7월 31일까지 147일간

목포해양경찰서는 안개로 인한 연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7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147일간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예방법에 따라 특정시기에 기상악화나 자연재난 등으로 안전사

고가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는 경우 '관심', '주의보', '경보' 단계로 나누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이다.

3-7월은 짙은 안개로 인해 방파제, 선착장 등 추락·미끄럼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고, 갯벌이나 갯바위에 고립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목포해경 관내에서 지난해 농무기 연안사고 위

험예보제 발령시기에 연안에서의 추락·고립 등 안전사고가 18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위험예보 기간 중 항포구, 갯바위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안전계도와 함께 해양안전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기상악화 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해안가 및 방파제, 갯바위에 출입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며 "안개 등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박우량 신안군수가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로부터 받은 '세계최우수관광마을' 선정 기념패를 들어 보이고 있다. <신안군 제공>

"신안 퍼플섬은 유엔 최우수관광마을입니다"

선정 기념패 전달 받아

신안군이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로부터 '세계최우수관광마을' 선정 기념패를 전달받았다.

이 기념패는 세계 32개국 44개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을 위해 유엔세계관광기구 본부에서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것이다.

유엔세계관광기구는 지난해 12월 2일(현지 시각)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총회를 열고 신안 '퍼플섬'을 제1회 유엔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했다.

국제특송으로 도착한 기념패는 세계최우수관광

마을 프로그램 로고를 형상화한 것으로서 코르텐(corten) 강철 소재를 이용해 만들었다고 군은 전했다.

퍼플섬 주민을 대표해 기념패를 받은 박우량 신안군수는 "선정 발표 때 이미 커다란 기쁨을 느꼈지만, 특별한 기념패까지 받으니 감회가 한층 새롭다"고 말했다.

이어 "퍼플섬은 세계적 수준의 관광지로서 지속 가능한 관광문화에 앞장서 국제적으로 소중한 자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퍼플섬은 파리 패션위크 패션쇼 영상촬영지로 떠올라 패션·디자인계의 핫플레이스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목포수협, 올 첫 새우젓 경매...위판고 5억 3800만원

목포수협은 서남권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올 해 첫 위판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위판장에서는 참새우젓, 북새우젓 등 771드럼 이 나와 5억3800만원의 위판고를 올렸다. 이는 지난해보다 2억3000만원이 증가한 수치이다.

목포수협은 국내 최대의 젓 주산지 새우젓,

강합어젓, 황색어젓, 갈치젓 등을 위판하고 있다.

김정룡 목포수협 조합장은 "어업인 소득증대, 복지증진, 위판마일리지 지급 등 위판판매 유지에 최선을 다해 전국에서 수산 관계자들이 찾아오는 위판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보리짚 소각 말고 환원하세요

해남군 ha당 40만원 지급

"보리짚 소각 안돼요."

해남군이 봄철 화재와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보리짚 소각을 예방하기 위해 보리짚 환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보리를 수확한 뒤 잘게 절단해서 눈같이 한 농가에 대해 ha당 40만원을 지급하게 되며 대상농지는 2021년 보리(보리, 귀리, 밀)를 재배한 논이모작 직불금 농지이며, 전체 사업량은 200ha, 총 8000만원을 투입한다.

신청 기간은 18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해남군에 주

소를 두고 보리짚 활용사업 대상 농지를 실제 제작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수확 후 발생하는 보리짚 토양환원을 통해 탄소배출 저감과 지역주민 등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기반을 조성하는 효과가 있다"며 "토양 환원을 통해 유기물 함량을 높여 고 품질 식량작물을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남군은 농어촌 지역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과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 등 다양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